

국제갤러리, 12 월 17 일 장-미셸 오토니엘 개인전 《NEW WORKS》 개최

언론초청: 2020 년 12 월 17 일(목) 오전 11 시, 오후 12 시, 1 시

전시기간: 2020 년 12 월 17 일(목) – 2021 년 1 월 31 일(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K1

국제갤러리는 오는 12 월 17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까지 프랑스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의 개인전 《NEW WORKS》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6 년에 열린 국제갤러리 개인전 이후 4 년 만에 한국 관람객들을 만나는 자리이자 재개관 이후 K1 에서 열리는 두 번째 전시다. K1 두 곳의 전시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새로운 유리조각 작품과 드로잉, 그리고 작가의 작업 경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회화작품까지 총 37 점의 신작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작들은 코로나 19 가 야기한 국제적 재난의 시대, 작가가 세상과 단절된 채 몰두해온 작업들로 우리에게 도래한 새로운(NEW) 창조 및 문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혼란한 세상에서도 불변하는 아름다움의 진리를 사유하길 바라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있다.

장-미셸 오토니엘은 다양한 시대와 장소의 의식 행위나 종교적 관습 등을 창작의 영감으로 삼고, 이를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업으로 풀어왔다. 작가는 특히 이러한 주제를 '변형'이 용이한 매체(유리, 황, 왁스 등)를 활용해 표현하는데, 이때 재료를 불로 녹이는 등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재료의 형태가 바뀌는 순간, 즉 작가 스스로 작업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예술적 실험을 거듭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작가는 미국, 중국, 인도, 멕시코 등 다양한 문화권의 수공예가들과 협업하며 내용적, 형식적인 측면에서 작업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시켜왔다.

삼청동의 풍경을 면하고 있는 K1 의 첫 번째 전시장은 인도 유리공예장인의 전통적인 유리제조법에 영감 받아 시작된 <Precious Stonewall> 연작으로 구성된다. 지난 1969 년 뉴욕 동성에 커뮤니티가 미국 경찰에 저항한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에서 제목을 차용한 이 연작은 오토니엘의 유리 매체의 물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결과이자 그가 목표로 했던 건축적 규모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가는 2010 년 인도 피로자바드(Firozabad)로의 여정에서 만난 수공예가의 장인정신에 큰 감동을 받아 그들의 전통 유리공예 기법을 배우고 협업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집을 짓기 전 땅을 먼저 산 후 벽돌 더미를 쌓아 두는 현지인들의 일상 속 관습에서 영감 받은 작가는 이후 작업 여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마주하면서 벽돌에 담긴 의미를 숙고하고 하나의 조형적 언어로 발전시켰다. 벽돌은 인류 역사 이래 무수한 문화권에서 사용되어온 보편적인 재료이자 가장 원시적이고도 본질적인 주(住) 혹은 삶을 향한 굳은 염원을 은유한다. 작가는 역설적으로 벽돌을 깨지기 쉬운 찰나의 순간을 의미하는 유리로 변환하는데,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 색상을 입힌 <Precious Stonewall>을 처음 선보인다. 한편,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Stairs to Paradise>는 천국 혹은 지상 낙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을 상기시킨다. 벽돌로 만든 설치작품은 조각의 개념을 넘어 공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건축적 장치로 발전되고 이를 통해 작가가 초기부터 탐구해온 작품과 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사유가 다시금 발화한다.

첫 번째 전시장과 두 번째 전시장을 잇는 K1의 복도 공간에는 <Precious Stonewall> 연작의 수채화 드로잉 판화 10점이 설치된다. 독일 출신의 20세기 작가 조셉 알버스(Josef Albers)가 바우하우스에서 교수 시절 제작한 '글래스 페인팅'을 상기시키는 이 판화들은, 작가의 매체에 대한 탐구를 넘어 기본 조형 요소인 색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투명한 파란색과 어두운 파란색, 노란색과 에메랄드 초록색, 파란색과 회색 등 두 가지 색상의 조합을 통해 벽돌 조각작품의 단순한 재현 혹은 서술을 넘어 오토니엘의 추상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전시장은 오토니엘의 대표적인 거울 유리 작품과 장미 회화 연작으로 구성된다.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빠질 수 없는 '꽃'은 자연에 대한 깊은 경의를 상징한다. 미술가가 되기 이전부터 꽃에 관심을 가져온 작가는 이 대상을 자신의 작품 주제로 빈번히 등장시켜 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루브르의 장미(La rose du Louvre)> 회화 6점과 더불어 장미를 주제로 삼은 신작 회화 4점, 그리고 조각 4점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루브르의 장미>는 2여 년 동안 루브르 박물관의 5,000여 점에 달하는 소장품을 면밀히 살펴며 그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연구한 작가가 17세기 바로크 화가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역작 <Wedding of Marie de' Medici to Henry IV>에 등장한 장미에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이다. 금박을 칠한 캔버스에 검정 잉크로 장미를 표현한 이 회화 작품은, 2019년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건축 30주년을 맞이하여 현대미술가의 작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박물관의 초청을 받았고, 이후 해당 작품의 소장까지 성사되었다. 장미 회화 연작들과 함께 선보이는 거울 유리 조각품인 <루브르의 장미(Rose of the Louvre)> 3점은 기존의 유리구슬 작업과 유사하면서도, 분홍색을 활용한 채색을 통해 장미의 생동감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반면 스테인리스 구슬에 검은색 파우더를 코팅된 또 다른 <루브르의 장미(Rose of the Louvre)>는 빛을 반사하지 않는 육중한 느낌을 내는데, 함께 설치된 조각품과는 대비되는 독특한 분위기로 전시 공간에 하이라이트를 부여한다.

이번 전시는 장-미셸 오토니엘에게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잡은 '변형'과 '변신'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발전 및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해왔는지 등 작가의 폭넓은 예술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작가는 일상적, 보편적 재료인 벽돌을 오랫동안 사치품으로 여겨진 유리로 변형, 표현함으로써 강인함과 연약함의 충돌 및 대비를 극대화하고, 생명력의 상징인 붉은 장미를 검정색으로 코팅하여 본래의 속성에 변형을 가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단순한 예술적 실험을 넘어 실재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일깨우며 잊고 있던 환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작가 소개

1964년 프랑스의 중동부 생테티엔(St. Étienne)에서 출생한 장 미셸 오토니엘은 현재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9년 프랑스 파리-세르지 고등미술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Cergy-Pontoise)를 졸업하기 전인 1985년부터 조각, 설치, 미디어 작품 등으로 꾸준히 전시활동을 이어 갔고, 유황을 소재로 한 조각작품으로 1992년 독일 카셀 도큐멘타에 참가하면서 현대미술가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파리 지하철 개통 100주년을 기념하여 팔레 루아얄-루브르 박물관(Palais-Royal - Musée du Louvre)역에 무라노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지하철 입구를 제작한 작업 <야행자들의 키오스크 (Kiosque des Noctambules)>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 받았고, 2015년에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 <아름다운 춤 (Les Belles Danses)>를 영구 설치하여 동시대의 영향력 있는 작가로 이름을 올렸다. 2019년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초청을 받아 작업한 작품 <루브르의 장미 (La rose du Louvre)>가 현대미술가의 작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박물관에 영구 소장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부에노아이레스 키르치네르 문화센터에서 열린 《Nudos Salvajes - Arte y matematicas》(2019), 몬트리엘 미술관 《MOTION - EMOTION》(2018),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Face à l'obscurité - Facing Darkness》(2018), 세프의 옥시타니 현대미술센터와 몽펠리에의 까레 생트 안느 현대미술공간 동시에 열린 《Géométries Amoureuses》(2017), 도나흐의 괴테아눔 《Invisibility Faces》(2015), 보스턴 이사벨라 스투어드 가드너 미술관에서의 《Jean-Michel Othoniel: Secret flower sculptures》(2015) 등이 있다. 또한 휴스턴 현대예술박물관(2019), 캥 미술관(2019), 조르주 퐁피두 센터(2018), 그랑 팔레(2017), 팔레드 도쿄(2015), 마이애미 베스 미술관 (2014) 등 유수의 기관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주요 소장처로는 퐁피두 센터, 까르티에 재단,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하여 뉴욕의 MoMA, 뉴욕 공립도서관, 벨기에 보고시안 재단, 서울 삼성미술관 리움, 상하이 부디텍 유즈 미술관, 베니스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 등이 있다.



장-미셸 오토니엘(b.1964)

<Precious Stonewall>

2020

Green and emerald green mirrored glass, wood

33 x 32 x 2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Othoniel Studio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장-미셸 오토니엘(b.1964)

<Precious Stonewall>

2020

Amber and emerald green mirrored glass, wood

33 x 32 x 2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Othoniel Studio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장-미셸 오토니엘(b.1964)

<Stairs to Paradis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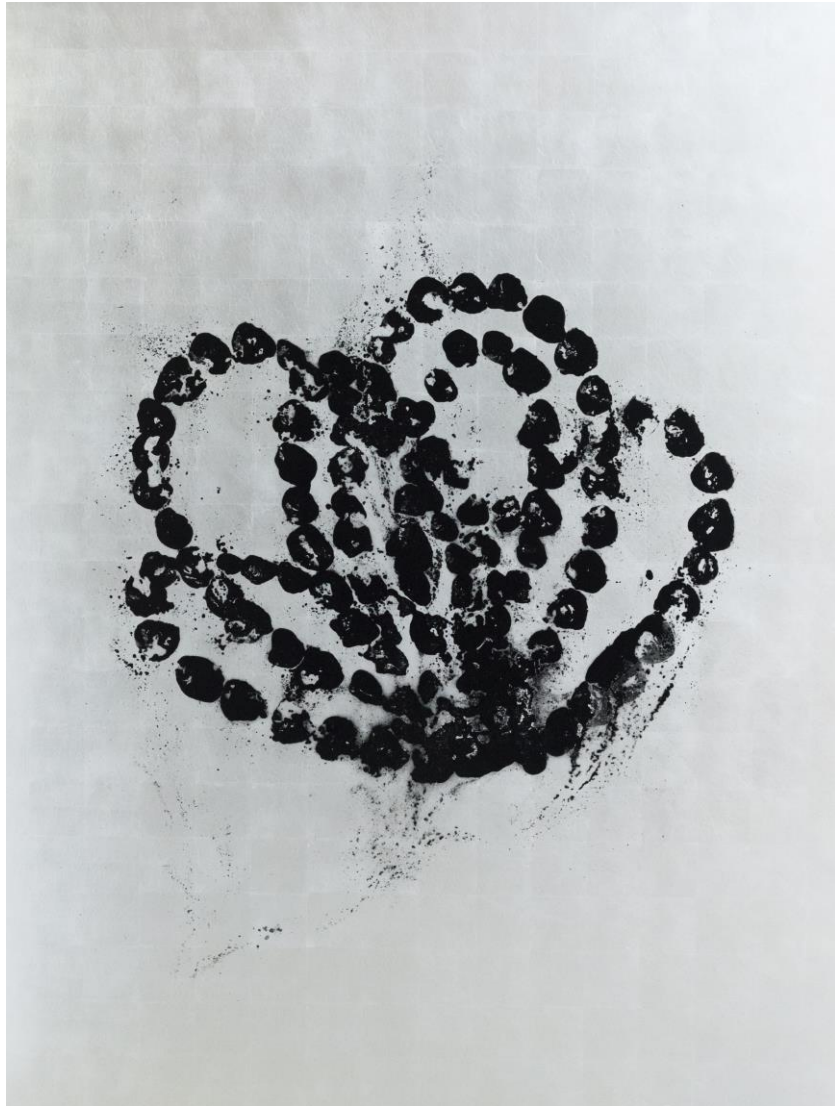
Clear blue, dark blue and grey mirrored glass, wood

86 x 174 x 3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Othoniel Studio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장-미셸 오토니엘(b.1964)

<Rose of the Louvre>

2020

Painting on canvas, black ink on white gold leaf

164 x 124 x 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Othoniel Studio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장-미셸 오토니엘(b.1964)

<Rose of the Louvre>

2020

Stainless steel, black powder coating

120 x 180 x 19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Othoniel Studio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장-미셸 오토니엘(b.1964)

<Rose of the Louvre>

2020

Mirrored glass, stainless steel

77 x 120 x 12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Othoniel Studio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장-미셸 오토니엘 프로필 이미지

사진: Claire Dor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 ID: kukjegallery | PW: kukje

KUKJE GALLERY | COMMUNICATIONS
T +82 2 3210 9821 | press@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03053 KOREA
T + 82 2 735 8449 | F + 82 2 733 4879 |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 12 월 17 일 장-미셸 오토니엘 개인전 《NEW WORKS》 개최